

NOROO

NOROO

SUMMER · 2024

VOL. 71

NOROO

NOROO Quarterly Magazine

SUMMER · 2024

VOL. 71

SPECIAL THEME
[WONDERLAND], 가치를 올리다



SPECIAL THEME



[WONDERLAND], 가치를 올리다

06	VIEWFINDER	파워풀 원더풀 컬러풀 원더랜드 NOROO PRESENTS HONG CHUL WONDERLAND BY OKUDA SAN MIGUEL
10	INTERVIEW	NOROO의 컬러, 원더랜드로 길을 내다 노루페인트 NSDS 현정오 차장

CULTURE GALLERY

16	COLOR SOUND	NOROO와 빈폴이 연주하는 청량한 여름
18	ACTIVITY	자연과 함께 놀자 공원과 농원의 생태체험
20	FOOD	맛있게 건강하게 한 그릇의 한 끼

28 . FOCUS ON NOROO 2



32 . COLORFUL SPACE



44 . PAINT FOR ART 3



NOROO PEOPLE



24	FOCUS ON NOROO 1	기반테크 차광제 일본 시장 본격 진출 기반테크 에너지세이버 차광제
28	FOCUS ON NOROO 2	반려가족을 위한 솔루션을 생각하다 설채현 수의사와 노루페인트
32	COLORFUL SPACE	노루페인트와 빈폴의 쿨한 클래식 노루페인트 X 빈폴, 2024 SS 컬러 사운드 콜라보 컬렉션
36	PAINT FOR ART 1	빛의 연대기 컬러로 함께하다 《새벽부터 황혼까지-스웨덴국립미술관 컬렉션》WITH NOROO PAINT
40	PAINT FOR ART 2	사라졌으나 살아난 그곳, 폼페이 《폼페이 유물전 - 그대, 그곳에 있었다》WITH NOROO PAINT
44	PAINT FOR ART 3	다채로운 시선 끝 찬란한 빛깔들 《볼로냐 일러스트 원화전 57TH》WITH NOROO PAINT
48	NEWS BRIEFING	
51	QUIZ	

NOROO 그룹 사보 담당자

(주)노루홀딩스 인사지원팀 정석찬 차장	(주)노루페인트 디지털마케팅팀 박지현 대리	(주)노루오토코팅 경영기획팀 안세현 과장	(주)노루코일코팅 인사총무팀 추정민 주임
(주)노루케미칼 업무지원팀 신성민 사원	(주)노루알앤씨 경영지원팀 신성민 사원	(주)노루로지넷 경영지원팀 김지안 주임	(주)기반테크 경영지원팀 김효원 대리
(주)더기반 홍보디자인팀 김택수 차장			

SPECIAL THEME

[WONDERLAND], 가치를 올리다

원더랜드는 어떤 곳일까. 동화의 나라, 신나는 것이 가득한 아주 멋진 곳이라는 사전적 의미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상은 재밌는 놀이기구가 가득한 테마파크 같은 모습이지만, ‘신나고 멋진 동화’의 나라라는 표현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어린 시절의 나로 돌아가 나만의 감각으로 주변을 느끼고 향유하며 ‘가장 나다운 모습을 자유롭게 유쾌하게 만끽할 수 있는 곳’일 게다. 현실에서는 만나기 쉽지 않은 그 이상향을 컬러로 구현해 각자의 마음에 다채로운 ‘나만의 원더랜드’를 만들어 주었던 곳. 긍정의 에너지와 결합한 ‘컬러풀 원더랜드’로 감각을 새롭게 흔들어 깨우고 발산하게 해준 곳, 노루페인트의 밀라노 디자인 워크 전시 《Hong Chul Wonderland by Okuda San Miguel》이다.





파워풀 원더풀 컬러풀 원더랜드

NOROO presents Hong Chul Wonderland by Okuda San Miguel

누구나 마음속에 자신만의 원더랜드가 하나씩은 있다. 사람마다 이상향은 제각각이고 이루어내는 방법도 모두 다르지만, 공통점은 긍정의 에너지가 그 실현을 돕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유로움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 마음속 원더랜드는 반짝이며 현실 사이로 비현실 같은 빛을 비춰주곤 한다. 이러한 경험의 순간이 많아질수록 원더랜드는 광도를 높여 현재를, 현실을 밝게 만든다. 《NOROO presents Hong Chul Wonderland by Okuda San Miguel》은 폭발하는 컬러와 에너지로 원더랜드를, 밀라노 디자인 위크를 빛냈다.

NOROO, 노홍철, 오쿠다 산 미구엘이 만나다

전 세계 패션과 디자인을 주도하는 도시 밀라노의 4월은 유난히 화려하다. 밀라노 디자인 위크를 맞아 투명한 햇살과 상쾌한 바람 아래로 압도적 비주얼의 전시들이 도시 전체를 전시장 삼아 막을 열기 때문이다. 트렌드의 현주소는 물론 미래 모습까지 예감케 하는 이번 밀라노 디자인 위크의 전시들 사이에서 관람객의 줄이 유난히 긴 전시가 있었으니, 바로 노루페인트가 준비한 《Hong Chul Wonderland by Okuda San Miguel》이다.

관람객의 긴 줄이 시작되는 건물의 파사드에는 오쿠다 산 미구엘 특유의 지오메트릭 디자인이 연마된 보석처럼 면면의 컬러를 눈부시게 쏟아냈다. 입체와 평면, 직선과 곡선, 흑백과 컬러가 섞이면서 대립의 긴장과 기묘한 조화가 강렬한 이 파사드에서도 압권인 것은 입구이다. 콧수염 아래 딱 벌린 입이 그대로 입구가 되어 사람들을 이끄는 장면, 보자마자 누가 떠오르지 않는가? 그렇다. 긍정과 유쾌의 대변인, 방송인 노홍철의 상징 아닌가. 잠깐, 그리고 보니 줄 선 관람객들 사이로 독특한 의상을 입은 이가 아까부터 눈에 띈다. 아이스크림을 나눠주고 사진을 찍어주고 함께 춤까지 추며 전시장을 신나는 파티장으로 만들어버린 이 사람, 노홍철이다.





컬러와 에너지가 폭발하다

《Hong Chul Wonderland by Okuda San Miguel》은 말 그대로 오쿠다 산 미구엘에 의한 홍철 원더랜드였다. 새로운 장소와 문화, 사람들로부터 영감을 얻고 다양한 컬러로 서로 다른 세계를 결합하는 스페인의 아티스트 오쿠다 산 미구엘과 컬러 전문 기업 NOROO, ‘매분 매초 씬 없이 다른 색깔을 뿜어내는’ 노홍철의 만남은 컬러의 폭발을 예감케 했고, 그대로 구현되었다.

노홍철의 입속으로 들어가 우주선들의 궤적과 별이 가득한 복도를 지나 내부에 들어서면 높이 3미터에 달하는 노홍철 모티브의 조형 작품과 그래픽, 칼레이도스코프(Kaleidoscope)가 온갖 컬러로 관람객을 환영한다. 아니, 환영한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와락! 컬러 안으로 끌어안고, 컬러에 침범 빠뜨리며, 컬러 속으로 빙글빙글 빨려들게 한다.

특히 삼각 구조물에 그래픽이 360도로 투영되어 무한 공간을 만들어낸 칼레이도스코프는 마법이라도 부리는 듯, 관객들을 잠시 컬러 속에 가두기도 했다. 이곳에서 노홍철은 움직이는 작품과도 같았다. 전시 기간 내내 전시장 곳곳을 누빈 노홍철은 마치 페인트를 가득 묻힌 붓처럼 가는 곳마다 컬러를 튀기며 특유의 긍정 에너지를 전했다.



원더랜드, 컬러로 선명해지다

이 에너지틱한 전시는 기대와 입소문 속에 첫날부터 오픈런을 일으켰고 매일 수천 명이 몰리면서 전시 입장까지 2시간이 걸리는 등 뜨거운 반응으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노홍철이 직접 전시 현장을 소개한 인스타 라이브 방송은 1차에 이어 2차에서 접속자가 두 배로 늘기도 했다. ‘글로벌 디자인 축제에 걸맞은 전시’, ‘언어, 성별, 국적, 나이 상관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었던 전시’로서 현지 유력 매체가 이케아와 함께 ‘토르토나 지구에서 가장 불만 한 전시’에 선정하는 등 영예를 안으며 2만여 명의 관람객을 모은 《Hong Chul Wonderland by Okuda San Miguel》은 현대인이 살아가는 불안의 증폭 시대에 아찔한 컬러로 균열을 내고 그 사이로 원더랜드를 맛보게 했다. ‘하고 싶다면 해봐!’, ‘해보면 할 수 있어!’라는 에너지도 함께 불어넣으면서 말이다.

과거 한 인터뷰에서 노홍철은 “내가 가장 중요시한 것은 나만의 색깔을 갖는 것이었다. 어떤 색이든 자기만의 색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그 색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라 말한 바 있다. NOROO와 노홍철, 오쿠다 산 미구엘의 컬러풀 원더랜드 속에서 관람객들은 자신과 조응하는 특별한 컬러를 찾았을 것이다. 그리하여 각자가 주인공인 원더랜드에는 더 생생한 색이 입혀졌으리라.





NOROO의 컬러, 원더랜드로 길을 내다

노루페인트 NSDS 현정오 차장

역대급이라 불릴 만큼 열렬했던 현지 반응 속에서 성공적으로 끝난 《Hong Chul Wonderland by Okuda San Miguel》전시는 노루페인트의 이탈리아 현지 계열사인 노루 밀라노 디자인 스튜디오(NOROO Milan Design Studio)와 컬러 디자인 전문 연구소인 NSDS(NOROO Seoul Design Studio, 노루페인트 내 컬러 디자인 팀)의 공동 연출이었다. 2019년 첫 밀라노 디자인 워크 전시에서 올해의 원더랜드까지, 컬러의 영향력을 다양하게 펼친 배경과 과정에 대해 NSDS 현정오 차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현정오 차장이 'COVER ALL'을 살펴보고 있다. NSDS는 글로벌 컬러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담은 컬러 & 디자인 트렌드 북 'COVER ALL'을 발간하고 있으며 여러 산업 분야에서 컬러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컬러 전문 기업 NOROO, 밀라노에 가다

NOROO가 밀라노 디자인 워크에 참가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NOROO는 컬러의 힘을 전파하고 컬러 전문 기업의 역량을 선보이기 위해 2019년, 밀라노 디자인 워크에 처음 참가했다. 한국의 이광호 작가, 북유럽의 작가 팀 '왕 & 소더스트롬'과 함께한 첫 전시 《TIDES》는 '밀라노 TOP 전시'에 선정되며 성공적 서막을 열었고 코로나 이후 2023년에는 폴란드 디자인 스튜디오 UAU Project와 청각, 후각, 시각적 장치가 완벽히 조화된 전시 《MIRAGE》를 선보여 많은 관람객의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올해 《Hong Chul Wonderland by Okuda San Miguel》까지, NOROO는 예술가와 소재, 주제를 달리하며 번지고, 스미고, 튀어 오르고, 부딪히며 다양하게 변주되는 컬러로 근원적 자연, 아스라한 판타지, 강렬한 열정 등 위로와 힐링이 될 '원더랜드'들을 구현하고 관람객들로 하여금 마음껏 즐기게 했다. 이렇듯 컬러의 힘을 체계적 하며 NOROO의 창의성을 알리는 밀라노 디자인 워크 전시는 규모가 큰 만큼 준비 기간도 길었다.



전시의 경쟁터, 컬러로 포문을 열다

“전시가 끝난 직후부터 준비가 시작됩니다. 4월에 전시가 종료되면 5월에 리뷰 시간을 가진 후 6월부터 전시장 섭외와 아티스트 선정에 나서죠. 일주일 동안 800개가 넘는 브랜드가 참여해 2,000여 개의 이벤트가 열리는 밀라노 디자인 워크는 사실 격렬한 경쟁의 장입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눈에 띄기 위해서는 장소가 매우, 매우 중요해요.” 현정오 차장은 장소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에도 접근성, 주목성, 면적, 이웃하는 브랜드의 유명세까지 고려하느라 장소 확정에만 4~5개월이 걸렸다.

“동시에 전시 테마도 구체화합니다. 이번 테마는 ‘궁극의 불안’에서 비롯됐어요. 계속되는 기후 변화, 전쟁, AI의 비약적 발전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컬러의 역할은 뭘까 고민했을 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즉시적 창의성(Instant Creativity)’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노홍철 씨의 긍정 에너지와 이를 증폭시키는 오쿠다 산 미구엘의 기하학적이고도 컬러풀한 세계가 합쳐지면서 ‘원더랜드’라는 테마가 도출되었습니다.”





홍철책방 등으로 노루페인트와 여러 접점을 가지면서 NOROO의 철학과 컬러에 대한 진심을 깊이 이해해 온 노홍철 씨는 자신을 모티브로 한 전시에 특유의 에너지를 더욱 아낌없이 쏟았다. 벽화를 통해 사람들과 공존하는 작품을 만들며 주변을 바꾸는 예술의 힘을 보여주하고자 하는 오쿠다 산 미구엘 작가 역시 컬러의 파급 효과와 노홍철 작가의 긍정 에너지에 호응하며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영감을 주는 공간을 창조해 냈다. NOROO는 즉시적 창의성을 키워드로 엄선한 컬러들을 작가에게 제공, 오쿠다 산 미구엘의 오리지널 모티브에 이번 전시의 특색을 부여했다. 그 결과 《Hong Chul Wonderland by Okuda San Miguel》은 컬러의 축제 같은 전시장이 되었다.



엔터테이너 노홍철은 '홍철책방'으로 NOROO와 인연을 맺게 되면서 특유의 에너지에 NOROO의 생생한 컬러를 결합한 여러 공간을 만든 바 있다. 과거 <무한도전>에서 "밀라노 가즈아!"를 외쳤던 그는 이번 《Hong Chul Wonderland by Okuda San Miguel》로 밀라노 입성에 성공, 원더랜드 역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긍정의 에너지를 전했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보여준 원더랜드

올해 전시는 이전의 전시보다 훨씬 역동적이었던 만큼 전시장의 컬러처럼 감정이 더 자유로이 발산되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현정오 차장은 "오쿠다 산 미구엘 작가를 선정하게 된 출발점 중의 하나"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컬러 선택을 어렵습니다. 어울리는 컬러 조합에는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컬러는 자유롭게 사용하며 얼마든지 즐거울 수 있고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어요. 저희는 컬러의 정답이 아닌, 컬러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서 전시를 여는 이유이자 이번 전시의 목적이었지요."

이를 위해 NOROO는 전시장에 제품을 전시하지 않고 오로지 컬러와 아티스트만을 부각했다. 그 이유와 실천에 대해 노홍철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언급하자 "NOROO에 대해 새로이 알게 되었다." "이념이 멋있다"는 댓글이 달리고 500개가 넘는 추천 수를 얻기도 했다. 오로지 컬러만을 향한 행보에서 자연스럽게 브랜드 이미지가 올라간 것이다. 그래서 NOROO의 다음 발걸음이 더욱 궁금해진다.



1980년 스페인에서 태어난 오쿠다 산 미구엘은 기하학적 패턴과 대담한 색채 조합으로 '컬러와 공간의 마법사'로 불린다. 주요 사회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그는 <Kaos Temple>, <무지개 해골>, 삼성전자 퀴텀TV 광고 등으로도 유명하다.

"위로를 얻고 리프레시되는 공간에서 문득 알아차리게 되는 컬러들로 NOROO가 곁에 있음을 느끼게 해 드리고 싶어요. 이번 전시에서 그러한 성과를 얻게 되어 실무자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또한 좀 더 차별화되고 전문적인, 훨씬 정제되고 세련된 컬러 콘텐츠 등으로 많은 분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NOROO라는 브랜드가 새로 인식되고 더 친숙해지길 바랍니다."라는 현정오 차장이다. 《Hong Chul Wonderland by Okuda San Miguel》뿐만 아니라 전시, 공연, 의미 있는 곳곳의 공간에 컬러로 함께하며 NOROO는 크고 작은 원더랜드를 계속 만들고 있다. 점이 모여 점묘화가 되듯 그 원더랜드들은 모이고 쌓이며 현실 세계에 아름다움을 넓히는 중이다.

CULTURE GALLERY

뜨거운 태양으로 자연이 생동하고 에너지가 끓는 여름엔 오히려 내 몸의 에너지는 소진되기 쉽습니다.
산뜻한 컬러로 활기를 만들고, 자연의 생기를 받아들이며 가벼운 한 그릇에 한 끼의 즐거움을 채워 보세요.
여름이 바람처럼 지나갈 겁니다.

NOROO와 빈폴이 연주하는 청량한 여름

노루페인트와 빈폴의 첫 콜라보레이션이었던 2024 SS 컬렉션의 주제는 <컬러 사운드>였다. 제품 출시 및 팝업 스토어 오픈일에 앞서 4월 30일 공개된 <컬러 사운드> NOROO X BEANPOLE 편은 청량감 가득한 음악 속에서 페인트와 패브릭으로 만나는 15가지의 컬러로 여름을 앞둔 마음을 설레게 했다.



SCAN ME

스트라이프 위 노루와 자전거

경쾌한 재즈 선율에 맞춰 등장하는 분홍색 캐리어로 시작되는 영상은 자연스레 여행을 떠올리게 한다. “무엇을 채워서 어디로 떠날까?”하는 들뜬 기분에 어울리는 보송보송한 느낌의 Bleached Pink 14-2808의 캐리어가 열리는 순간 나타난 건 COLOR SOUND 글자와 두 마리 노루의 로고, Beanpole 이 프린트된 색색의 페인트통. ‘아하, 컬러로의 여행이구나!’라고 예감하자마자 클로즈업으로 부각되는 빈티지한 노랑의 Maize 13-0746, 짙은 파랑의 Symbolic Blue 19-4245, 선연한 빨강의 Totemic Red 19-1758, 에너지가 느껴지는 Electric Green 18-0540 컬러의 페인트통들은 보색 대비되는 파랑, 노랑, 에메랄드그린, 마젠타의 배경 위에서 빙글빙글 돌며 여행길 위의 발걸음처럼 통통 튀는 발랄함을 전한다.

근심 걱정 따윈 튕겨 버리는 듯한 가벼운 기타 선율과 피아노 소리 속에서 쏘르륵 스포이드로 옮겨져 주르륵 흘러내린 Symbolic Blue 19-4245, Mediterranean White 11-4801, Totemic Red 19-1758의 세 가지 색상과, 이어서 한 세트가 되어 미끄러진 Strange Teal 19-5220, Wizard’s Land



15-6315, Mediterranean White 11-4801는 빈폴의 티셔츠로 옮겨져 각각 산뜻한 스트라이프 무늬를 만들었다. 브랜드들의 헤리티지가 투영된 컬러 스트라이프 위를 빈폴의 자전거가 경쾌하게 달리고 두 마리의 노루가 귀를 쫑긋 세우면서, 귀여운 티셔츠가 완성되었다. 2024 SS 컬러 사운드 콜라보 컬렉션 아이템이다.



클래식 속 활기와 생동의 여름

페인트잇수다 <컬러 사운드>의 페인트칠 소리는 희한하게 귀에 착 달라붙는다. 붓이 싹싹 지나가고 마스킹 테이프가 샤삭 소리를 내며 깔끔한 라인을 만드는 건 화면 속 일인데 페인팅되는 게 마치 내 귀라도 되는 것처럼 생생하다. 그렇게 진한 Strange Teal 19-5250의 초록과 Raw Black 19-3812의 검정이 쓸고 지나간 화면에 롤러가 Classy Shadow 18-1720와 Maize 13-0746를 한 번에 도르르 풀어놓으니 2024 SS 컬러 사운드 콜라보 컬렉션 아이템 두 가지가 딱딱 등장했다. 아이비리그 잔디밭에서 샌드위치를 먹으며 책을 읽는 장면이 자동 연상되는 클래식하면서도 쿨한 분위기의 컬러 조합이다.

토독토독 두들겨 스텐실로 새긴 Miracle Summer의 노랑 티셔츠는 여름 하늘을 배경으로 산들바람에 날리고, Coctus 18-6024, Symbolic Blue 19-4245, Totemic Red 19-1758 색깔을 입은 롤러는 COLOR SOND 티셔츠의 옷걸이가 되어 여름을 선명하게 색칠할 태세를 갖췄다. 분홍 테니스공이 굴러간 자리엔 양말과 백, 테니스 치마, 모자 등이 모여 활기찬 스포츠의 매력을 컬러로 전한다.

다양한 컬러가 담긴 매력적인 아이템들의 스마일로 마무리되는 이번 <컬러 사운드> 영상은 보색을 활용한 현대적 해석으로 여름의 생동감과 스포츠의 역동성, 즐거움을 두 브랜드의 클래식한 이미지와 배합한 NOROO의 뛰어난 컬러 제안을 2024 SS 컬러 사운드 콜라보 컬렉션과 함께 즐길 수 있게 했다. 영상이 플레이되는 3분 4초가 끝난 후에도 귓가에 음악 소리가 재생되고 눈 앞에 2024 SS 컬러 사운드 콜라보 컬렉션이 아른거린다면 늦기 전에 빈폴 온라인 샵을 방문해 보자.

자연과 함께 놀자 공원과 농원의 생태체험

여름은 자연의 힘이 드세지는 철이다. 태양광이 강해지는 만큼 땅 위의 모든 것도 무럭무럭, 씩씩하게 자란다. 올여름엔 자연의 거센 에너지를 직접 만나고 체험하는 생태공원, 생태농원, 생태체험관을 가보는 게 어떨까. 실내에서는 시원하게, 실외에서는 자유롭게 자연과 함께 놀아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사진 출처 미래한강본부 홈페이지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에 가면 두 번 놀라게 된다. 특히 여의교와 서울교까지의 1.2km 구간이 그렇다, 첫 번째는 “아니, 이런 자연이 서울 한복판에 있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공원이라고?”이다. 공원이라고 하면 보도블록과 잔디밭으로 나뉘어 정돈된 보행로와 녹지, 잘 다듬어진 조경수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곳은 그런 게 없다. 그저 자연 그 자체다. 졸졸 흐르는 개울 옆 수풀과 나뉘 쓰는 흙길, 축축 늘어지고 영키며 하늘을 향하고 그늘을 드리우는 나무들 속에서 가끔 나타나는 목조다리와 이정표만이 이곳에 사람 손이 닿았음을 알려준다.

도시 한복판에서 갑자기 깊은 숲속으로 들어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곳은 한국의 대표 조경가인 정영선 씨의 작품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생태공원이기도 하다. 그는 <유퀴즈>에 출연해 샛강을 주차장과 축구장으로 만들려는 정부 측을 설득하고 생태전문가를 초빙해 생태공원으로 만들게 된 비하인드를 밝힌 바 있다. 그냥 걷기만 해도 좋은 이곳에서 생태체험 프로그램까지 참여한다면 더 내밀한 자연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여의샛강생태체험관에서는 어린이 대상으로 ‘샛숲학교’를 열고 ‘수달 똥을 찾아라’, ‘어린이 자연놀이교실’, ‘어린이 그림책 교실’ 등을 운영한다. 성인 대상의 ‘숲속요가명상’, ‘싱잉볼 명상’ 등도 있으니 미리 접수해 이용해 보자.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사이트인 ‘yeyak.seoul.go.kr’에서 ‘샛강’을 검색하면 편리하다.



사진 출처 초막골생태공원 홈페이지

군포 초막골 생태공원

17만여 평의 부지에 자리한 군포 초막골 생태공원은 숲속 산책로와 야영장, 다랭이논과 맹꽁이 습지원, 텃밭 정원, 유아 숲체험원, 어린이 교통체험장, 자가발전 놀이시설, 파크골프장, 미니 수련원 등등 모두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시설을 갖춘 생태공원으로 인기가 높다. 자연은 물론, 놀이와 체험이 가득한 이곳엔 고급형, 일반형 글램핑까지 구비한 캠핑장도 있는데 특히 캠핑장의 예약은 치열할 정도다.

군포 초막골 생태공원은 생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계절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크게 초막골 생태전시관 체험과 자연 관찰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8월까지 진행되는 올 여름의 생태전시관 체험 프로그램은 ‘와! 여름이다. 와글와글 곤충 친구들’과 특별프로그램인 ‘『속닥속닥 그림책 숲 놀이』: 생태그림책 나의 여름’, ‘『뚝뚝뚝 그린메이커』: 생물다양성 활동, 둥덩이 바로 지구다’, ‘어쩌다이벤트’라는 이름으로 마련된 ‘새우양과 가재군의 별별 Q&A’ 등이 있다. 매월 1, 3주 토요일의 자연 관찰 프로그램은 달마다 주제가 바뀌며 ‘숲에서 애벌레 찾아보기’, ‘나비의 생존전략’ 등으로 운영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gunpo.go.kr/chomakgol/index.do)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예약 신청 역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화성 물가풍경 자연생태농원

자연 속으로 풍덩 빠지고 허우적대 보는 경험은 어린 시절 여름방학의 묘미 아닐까? 화성 물가풍경 자연생태농원은 다양한 습지 생물종 체험학습과 숲 체험활동, 숲 밭놀이, 계절별 프로그램으로 아침부터 오후까지 어린이와 가족들을 자연 속에서 웃고, 떠들고, 신나게 움직이도록 해 준다. 봄에는 물속 생물 채집, 창포물 머리 감기, 황소개구리 관찰 등의 생태체험, 여름에는 연잎놀이 즐기, 워터슬라이딩, 풀피리 불어보기 등의 물놀이, 가을에는 메뚜기 잡기, 밤 따기, 전통 버탈곡 체험, 인절미 만들기 등의 전통 수확 체험, 겨울에는 얼음 썰매 타기, 얼음 깨기, 군고구마 구워 먹기 등의 겨울 놀이가 준비되어 있다. 여름놀이는 주로 시원한 그늘에서 진행된다. 오전에 숲속에서 하는 밭놀이와 새총 사격, 커다란 연잎 그릇에 음료를 따라 연줄기 빨대로 마셔보기, 연잎으로 거품놀이 하기, 개구리와 거북이도 함께하는 물놀이 등은 잊지 못할 여름 추억을 만들어 줄 것이다. 블로그 후기 사진의 함박웃음들을 보면 현장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자녀를 위해 참가했다가 부모가 더 즐거워하기도 하는 곳. 여름뿐만 아니라 계절마다 찾아 사계절의 자연을 누려보는 것도 좋겠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blog.naver.com/co-waterscap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 출처 물가풍경 자연생태농원

맛있게 건강하게 한 그릇의 한 끼

더위 속에서는 볼 앞에서 요리도 버거워지는 데다 입맛도 잃기 쉽다. 이럴 때 손을 놓으면 입맛에 이어 건강까지 잃을 수 있으니 의식적으로 한 끼, 한 끼를 소중하게 챙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볼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며 맛있고 건강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한 그릇으로 영양을 채워주는 레시피들을 소개한다.



오버나이트 오트밀

전날 준비해 아침에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오버나이트 오트밀은 상큼하고 든든한 하루의 시작을 돕는다. 준비 과정도, 먹는 데 걸리는 시간도 짧으니 한 번 시도해 보자. 한 번이 두 번, 세 번, 그리고 매일이 될 매력적인 아침 식사이다.

재료(1인분) 오트밀 40g, 치아씨드 5g, 땅콩버터 1/2작은술, 올리고당 1작은술, 아몬드밀크 100ml, 작게 썬 사과 1/5개, 블루베리 10알, 라즈베리 3알, 무가당 요거트 3큰술

- RECIPE**
1. 뚜껑이 있는 용기에 오트밀, 치아씨드, 땅콩버터, 올리고당, 아몬드밀크를 넣고 섞는다.
 2. 오트밀이 살짝 불어 위에 재료를 올려도 가라앉지 않을 때까지 5분 정도 둔다.
 3. 사과, 블루베리, 라즈베리를 2에 올리고 무가당 요거트로 윗면을 덮는다.
 4. 뚜껑을 덮고 냉장실에서 최소 4~5시간 뒀다가 먹는다.

캐슈너트마요네즈 포두부랩

쫄깃한 포두부, 고소한 캐슈너트마요네즈, 다양한 속재료로 영양을 꽉 채운 랩. 캐슈너트마요네즈는 캐슈너트 150g, 무가당 두유 190ml, 물 50ml, 에리스리톨 스테비아 1큰술, 레몬즙 1큰술, 소금 1/2작은술을 곱게 갈아 만들 수 있다. 캐슈너트마요네즈 대신 일반 마요네즈를 사용해도 된다.

재료(1인분) 건조 포두부 1장, 시판 수비드 닭가슴살 50g, 게맛살 2개, 파프리카 1/4개, 미니 단호박 1/3개, 샐러드 채소 40g, 캐슈너트마요네즈(혹은 일반 마요네즈) 1큰술, 홀그레인 머스터드 1/2작은술

- RECIPE**
1. 마요네즈, 홀그레인 머스터드를 섞는다.
 2. 닭가슴살, 게맛살, 파프리카는 비슷한 크기로 길게 썬다.
 3. 단호박은 가운데 씨를 제거하고 1cm 두께로 썰어 내열용기에 넣고 전자레인지에서 5~7분간 돌려 익힌다.
 4. 포두부에 1의 소스를 펴 바른 후 샐러드채소와 2, 3을 올린다.
 5. 재료가 빠져나오지 않도록 양끝을 안쪽으로 여며 돌돌 말고 2등분한다.



치아푸딩 베리 요거트볼

냉동 과일과 그릭 요거트를 갈아 되직하고 상큼한 요거트볼을 만들어 보자. 치아씨드를 푸딩처럼 올리면 식이섬유 섭취가 늘어나고 토핑으로 땅콩버터를 곁들이면 영양과 함께 고소한 맛도 더해진다.

재료(1인분) 그릭요거트 100g, 냉동 딸기나 다른 베리류 100g, 냉동 바나나 1/2개 혹은 아보카도 1/2개, 냉동 블루베리 1/2컵, 치아푸딩, 토핑(카카오닙스 1큰술 혹은 다진 다크 초콜릿 1조각, 무첨가 땅콩버터 1큰술)

- RECIPE**
1. 작은 볼에 치아씨드, 아몬드 우유를 넣고 골고루 섞은 후 5분 이상 불려 치아푸딩을 만든다.
 2. 믹서에 그릭 요거트, 냉동 딸기, 냉동 바나나, 냉동 블루베리를 넣어 곱게 간다. (과일의 일부는 토핑으로 사용해도 좋다)
 3. 볼에 1, 2를 담고 토핑 재료를 올린다.

프렌치 토스트 샐러드볼

프렌치 토스트에 과일과 채소를 곁들이면 상큼한 한 그릇의 한 끼가 된다. 메이플 시럽을 넣어 만든 드레싱을 곁들이면 달콤함으로 기분도 좋아질 것이다.

재료(1인분) 곡물 식빵 1장, 시금치나 채소류 25g, 딸기(혹은 바나나, 포도) 100g, 보코치니 치즈 혹은 기타 치즈 30g, 무염 버터 1큰술, 아몬드 슬라이스나 다진 견과류 10g, 달걀물(달걀 1개, 그릭 요거트 1큰술 혹은 우유 2큰술, 알룰로스나 올리고당 1작은술, 소금 1/3작은술, 통후추 간 것 약간), 메이플 발사믹 드레싱(메이플시럽 1큰술, 발사믹 식초 1큰술, 올리브유 1작은술, 소금 약간, 통후추 간 것 약간)

- RECIPE**
1. 시금치나 채소류는 먹기 좋게 2~3등분한다. 딸기는 2등분한다.
 2. 곡물 식빵은 8등분한다.
 3. 볼에 달걀물 재료를 넣어 골고루 섞는다.
 4. 3에 곡물 식빵을 넣어 충분히 적신다.
 5. 달군 팬에 버터를 올려 버터가 녹으면 곡물 식빵을 넣고 중앙 불에서 앞뒤로 각각 1분 30초씩 굽는다.
 6. 작은 볼에 메이플 발사믹 드레싱 재료를 넣어 골고루 섞는다. 그릇에 시금치를 담고 나머지 재료를 담은 후 메이플 발사믹 드레싱을 곁들인다.



더 많은 레시피는 책에서 요리 의욕은 식욕뿐 아니라 도전 의식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요리책을 들고 하나하나 도장 깨듯 도전해 보는 건 어떨까. 건강과 함께 성취감도 따라올 것이다. 몸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레시피 팩토리의 책, 『저탄수 균형식 다이어트』와 『탄단지 밸런스 건강볼』을 추천한다. 위 레시피 중 오버나이트 오트밀, 캐슈너트마요네즈 포두부랩이 수록된 『저탄수 균형식 다이어트』(윤지아 저)는 저탄수 균형식 위주의 다양한 요리와 디저트, 음료까지 소개하며 치아푸딩 베리 요거볼과 프렌치 토스트 샐러드볼이 수록된 『탄단지 밸런스 건강볼』(배정은 저)은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의 비율을 40~60% : 15~35% : 15~30%로 맞춰 개발한 다양한 한 그릇 레시피들을 포케볼, 샐러드볼, 요거트볼, 수프볼로 나눠 담았다. 멋진 요리 사진은 읽은 식욕도 다시 돌아오게 만든다.





NOROO PEOPLE

우리의 먹거리를 지키고 쾌적한 노동 환경을 만들며
인간과 함께 동물의 안전도 지키는 NOROO의 기술력은
끊임없이 발전하며 해외로도 뻗어가고 있습니다.
컬러와 기술로 아름답고 안전하게,
NOROO가 만들어가는 현재와 미래입니다.

기반테크 차광제 일본 시장 본격 진출

기반테크 에너지세이버 차광제

지난봄, 기반테크가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다. 노루페인트가 개발하고 기반테크가 판매 중인 농축산용 차광제, ‘에너지세이버’의 일본 수출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이 제품은 노루페인트와 농촌진흥청이 지난 2014년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 개발한 고온대책 아이템으로 2023년 여름부터는 일본 이노치오(INOCHIO) 사의 온실 테스트를 거쳐 차광 효과를 입증, 수출이 성사되었다.

기반테크, 세계 온실 시장을 두드리다

온실이 규모화되어 있는 전 세계 5개국에 일본이 포함될 만큼 일본은 온실 시장이 크다. 이 일본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기반테크는 4년 전부터 노력했지만, 네덜란드 차광제가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쉽지 않았다. 그리고 드디어 올해, 이노치오 사를 통해 성공한 것. 인터뷰에 임한 기반테크 영업2팀 김순오 대리는 꾸준한 제안과 친환경 소재, 기후 특색에 따른 제품의 차별점을 성공 요인으로 꼽았다.

“현재 글로벌 차광제 시장은 모두 네덜란드 회사가 과점하고 있는 상태로, 일본 시장도 마찬가지였지만 제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2년 전, 라오스 현지에서 해외 사업을 진행 중인 이노치오사 담당자를 만나 제안 드렸지만 이미 네덜란드 제품을 판매 중이었죠. 그래서 이번엔 한국에 초청하여 공장 견학과 함께 우리 회사의 규모와 선진 기술력을 소개했습니다. 저희 제품이 스펙으로나 친환경 면에서 해외 제품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자신 있었지요. 일본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도 있고요. 제품을 면밀히 검토한 이노치오 사는 2023년 여름부터 현지 필드 테스트를 6개월 이상 진행했고, 결과에 만족하여 올해부터 저희 제품을 수입, 판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덜란드 회사의 제품과 비교했을 때 기반테크 에너지세이버 차광제는 한반도의 기후 특색에 맞추어 여름철 장마로 자연스럽게 제거되도록 설계되었다. 일본도 장마 기간이 있기에 이러한 점이 매력적으로 작용했을 터. 또한 친환경 전분 소재를 이용해 작물과 가축,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도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특징점이다.



가축이 한 자리에만 모인 이유

이러한 특징점을 가진 에너지세이버 차광제는 지난 2011년부터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특허를 취득, 개발에 성공하여 2014년에 출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다.

“온도 상승이 빠르게 진행되고 폭염이 잦아지는 기후 변화 속에서 농가의 여름철 작물 재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NOROO 기술의 근간인 코팅 기술을 바탕으로 더 좋은 국산 제품을 개발, 기후 변화를 이겨내고 소득을 올리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합작했지요. 차광제에는 온실용과 축산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실용은 태양광을 차단해 온도를 낮추는 동시에 온실 내부 산란효과로 식물의 광합성이 더 잘 일어나도록 하고 축산용은 온도 저감 효과를 높여 축사 환경을 개선해 줍니다. 에너지세이버는 적용 시 내부 온도를 4~5°C 가량 낮춰 주지요.”라는 영업2팀 송복근 주임의 설명에 김순오 대리는 재미있는 일화를 들려주었다. “한여름에 축사 지붕 작업 중인 현장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가축들이 한쪽에만 모여서 쉬더라고요. 지붕



을 보니 차광제가 먼저 칠해진 곳이었습니니다. 작물 컨설팅 업무를 위해 농가에 방문했을 때 근로자분들이 특정 온실에서 작업 하겠다며 앞다투는 모습을 본 적도 있어요. 저희 차광제가 적용된 온실이었죠.”

작업 난이도와 가축의 고온 피해를 낮추고 작물의 수확량을 높이는 효과가 입증되면서 에너지세이버는 시도별 사업 연계가 진행되는 등 국내에서도 농축산계의 필수 제품으로 자리 잡는 중이다.



농업계의 No.1을 꿈꾸다

기반테크는 차광제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다. 송복근 대리는 그중 농산물 신선 유지제와 코팅제를 소개했다. “최근 K-인기에 힘입어 세계 각지에서 한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반테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농산물 유통 시 신선도를 유지해 주는 신선 유지제를 개발 중입니다. 현재 사용되는 저온 컨테이너와 필름 등의 수출 방법을 대체할 편리한 제품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기반테크의 종자 코팅제는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하는 추세에 맞춰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설계된 제품으로 기계화 파종을 보다 용이

하게 만드는 기능성에 색상과 친환경성까지 부여했습니다. 종자 코팅제는 현재 태국 바이엘(Bayer, 구 Monsanto)에 납품이 확정되었으며, 해외 글로벌 기업에 꾸준히 제안 중입니다.” 기반테크는 비료 사용 효율을 높이는 비료 코팅제, 황사 및 미세먼지로 인한 광효율 감소로 반복되는 온실 비닐 교체 비용을 줄여줄 클리너 등 여러 방면으로 제품을 개발 중이다. 이러한 코어 기술을 근간으로 점차 글로벌 점유율을 확보해 농업계에서의 No.1을 이루겠다는 기반테크의 포부는 NOROO뿐 아니라 우리 농업에 든든한 힘이 될 것이다.

반려가족을 위한 솔루션을 생각하다

설채현 수의사와 노루페인트

최근 노루페인트의 순&수 울커버, 팬톤 우드&메탈, 팬톤 에어프레쉬, 이지크리닝 등 4종의 제품이 IGSC(국제지속가능인증원) 반려동물 제품 인증서를 받았다. 이는 반려동물의 편의성 및 안전성 증대를 위해 관련 제품의 적합성과 유해물질 여부를 확인하는 인증으로, 이 과정에서 노루페인트는 설채현 수의사에게 자문을 구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공간에 대한 귀한 조언을 들을 수 있었다. 그 조언을 나누어 본다.



놀로에 놀러와

유튜브 채널 〈설채현의 놀로와〉, 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tvN 〈대화가 필요한 개냥〉 등을 통해 반려견에 대한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무엇보다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행동학 수의사 설채현 씨를 만나기 위해 서울 강남의 놀로스퀘어를 찾았다. 이곳은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는 카페, 의료센터, 아쿠아센터, 피트니스와 데이케어, 고양이센터 등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건물 한 채에 갖춘 ‘반려가족을 위한 어반아지트’이다.

“보호자와 반려견이 좀 더 행복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놀로’라고 이름 지은 이유도 마음 놓고 놀러 왔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핀란드어로 ‘knoll(놀)’은 작은 산, 언덕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놀로스퀘어가 우리 보호자분들이 편히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호자와 반려견이 모두 즐거울 수 있는 공간을 위해 놀로스퀘어는 구석구석 세심하게 설계되었다. “1층 카페에서 그러한 배려를 가장 많이 느끼실 거예요. 강아지가 불안을 느낄 수 있는 거울은 없애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울타리를 두고, 미끄럽지 않은 바닥을 조성하고, 사람의 편의를 위해 청소하기도 편하게 꾸몄죠. 그리고 이 진료실에도 좀 특이한 것이 있지 않나요?”

그의 질문을 따라 진료실을 쪽 살펴보니 벽 하단부가 타일로 마감되었고 콘센트도 거의 조명 스위치만큼 높은 곳에 있다. “강아지들이 전선을 씹다가 화상을 입는 사고들도 있어요. 그래서 콘센트를 높였죠. 벽에 마킹을 할 수 있으니, 청소가 쉽도록 벽에 타일을 붙였고요. 이 공간은 제가 행동 진료를 보는 공간이라 더 다르게 만들었죠.”





노루페인트의 솔루션

이렇듯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은 달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그에게 노루페인트의 기술들은 반갑고 놀라운 것이었다.

“일단, 반려동물에게 벽지보다 도장이 마감재로 적합해요. 어린 강아지들은 씹고 싶은 본능이 강하거든요. 벽지를 다 물어뜯고 삼켜서 병원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벽지는 위산으로도 잘 녹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무엇보다 설채현 수의사는 강아지가 사람보다 훨씬 약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반려동물은 사람보다 체중도 훨씬 적게 나가기 때문에 한 번 호흡할 때 받아들이는 공기의 부피 비율이 훨씬 높아요. 게다가 후각도 예민하고 후각과 감정이 연결되는 부분도 사람보다 강하죠. 피부 두께도 사람의 1/3밖에 안 될 정도로 약하고, 중성이라 자극에 민감합니다. 그러니 몸에 닿는 마감재의 안전성과 공기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반려가족 모두가 쾌적해지려면 반려동물이 어쩔 수 없이 남기는 흔적을 쉽게 없앨 수 있는 마감재가 좋겠죠.”



이런 필요들을 충족해 주는 것이 바로 노루페인트의 IGSC 인증 제품들이다. 이 제품들은 VOC(휘발성 유기화합물)를 획기적으로 줄인 친환경 제품으로 특히 에어프레쉬는 도료에 함유된 특수 성분이 대기 중의 휘발성 오염물질을 흡착하여 대기를 정화하는 기능까지 있고, 이지크리닝은 특수 에멀전 수지와 안료로 내오염성 기능이 뛰어나다. 설채현 수의사는 이러한 제품들에 대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제품으로 모두 구현되어 있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라며 얼굴 가득 화색을 띄웠다. “특히 에어프레쉬는 동물병원, 미용실 등 반려동물 상업시설에 상당히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들의 냄새는 물론, 반려동물에게 유해하거나 불안감을 줄 냄새도 없애줄 테니까요.”라며 눈빛을 반짝였다.

행동의학 전문인 설채현 수의사가 가장 강조하는 솔루션은 ‘관리’이다. “긁고, 씹고, 비비고, 마킹하는 건 반려동물에겐 정상행동입니다. 그게 문제 되는 건 환경이 사람 중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교육도, 약물도 아닌 ‘관리’가 가장 중요한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인테리어 역시 반려동물의 자연스러운 행동들이 문제되지 않도록 조성되고 관리되는 환경이고요. 그런 면에서 노루페인트의 이 제품들은 좋은 솔루션이 되어 줄 겁니다.”

반려동물과 반려가족의 행복한 삶을 고민하는 설채현 수의사처럼, 노루페인트 역시 보다 행복하고 건강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연구와 개발을 이어갈 것이다. 이를 위해 아낌없는 조언을 준 설채현 수의사에게 감사를 전한다.



노루페인트와 빈폴의 쿨한 클래식

노루페인트 X 빈폴, 2024 SS 컬러 사운드 콜라보 컬렉션

지난 5월, 노루페인트는 캐주얼 브랜드 빈폴과 함께 2024 SS 컬러 사운드 콜라보 컬렉션을 출시하고 팝업 스토어를 열었다. 노루페인트의 <컬러 사운드>를 테마로 15종의 컬러 조합이 담긴 아이템과 팝업 스토어는 클래식함과 쿨함의 조화로 유쾌한 시너지를 전했다.

POP! 팝업 스토어

늘 많은 사람으로 북적이는 영등포 타임스퀘어, 노루페인트와 빈폴 팝업 스토어가 열린 첫날인 5월 1일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다. 다른 것이 있다면, 아빠와 손잡고 매장에 들른 꼬마 손님이 더 자유롭게 바닥을 뒹굴었다는 것일 게다. 빈폴 매장 한편에 마련된 팝업 스토어 바닥을 폭신한 카펫 소재로 덮었기 때문. PANTONE Coctus 18-6024의 진하고도 싱그러운 초록색은 더 뒹굴고 싶은 자연의 바닥을 연출해 줬다. 그 위로 흐르고 고인 PANTONE Bleached Pink 14-2808의 분홍 페인트 연출은 부드러움과 자유로움을, PANTONE Symbolic Blue 19-4245의 짙은 배경 연출은 시원하고도 도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 세 컬러는 팝업 스토어의 주제인 'COLOR SOUND'의 배경과 폰트 컬러로도 쓰이면서 특유의 클래식함과 자유로움이라는 복합적인 감성을 잘 전달했다. 벽면의 대형 모니터에서는 이번 콜라보레이션에 사용된 15종의 컬러가 어우러진 <컬러 사운드> 영상이 플레이되면서 컬러의 역할에 집중한 이번 협업의 매력을 한껏 전달했다.





여름, 올림픽 그리고 컬러

골프, 조명, 전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컬러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해 온 노루페인트이지만, 패션 브랜드와의 만남은 처음이다. 그 첫 만남을 빈폴과 함께하게 된 배경에는 그간의 전시 협업이 있었다. 빈폴 측은 노루페인트가 협업했던 전시장의 컬러들, 특히 마이아트뮤지엄 <프랑코 폰타나> 전시장 내 <컬러 사운드> 영상을 보고 협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게 되었다고 한다. 협업 진행 과정에서 콜라보레이션 상품에 노루페인트의 핵심 역량인 컬러 제안이 이루어졌고 심볼 및 팝업 스토어 디자인 등 내용이 더욱 풍부하게 확대되었다.

“두 브랜드 모두 긴 역사와 많은 스토리를 가졌기에 이를 유쾌하게 전할 수 있는 밝고 긍정적인 색감의 조합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클래식의 영역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Red와 Green, Blue를 기본으로 NOROO와 빈폴의 브랜드를 연상케 하는 컬러를 녹여냈죠” 이번 협업의 컬러 전략을 이끈 NSDS 현정오 차장의 설명이다. “더구나 빈폴은 트레이셔널 캐주얼 브랜드라 소비자가 요구하는 감성을 쉽게 풀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노골적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암시할 수 있도록, 브랜드와 전통적 감성이 적절하게 연상되는 컬러 전략을 취했어요.”

노루페인트는 또한 여름 시즌과 때마침 개최되는 파리 올림픽이라는 이벤트를 결합하여 밝고 에너지 높은 스포티한 색감, 상품성뿐만 아니라 매장 디스플레이에도 주목도를 높일 수 있는 컬러들을 효과적으로 믹스했다. 무엇보다 노루페인트의 <컬러 사운드> 영상에서도 생생히 구현되는 컬러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많은 것을 고려한 끝에 제안된 15개의 컬러들은 빈폴이 진행한 아이템 라인업과 상품 디자인에 따라 칼라넥 티셔츠, 스트라이프 티셔츠, 트래블 백, 키즈 제품, 볼캡, 버킷햇 등 다양한 상품을 색다르게 물들였다. 2024 SS 컬러 사운드 콜라보 컬렉션에 맞춰 제작된 <컬러 사운드>는 산뜻한 보색 대비를 통한 청량감 넘치는 화면과 사운드로 매장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Fashionable NOROO

이번 협업은 기술적 부분에서도 뛰어난 결과를 낳았다. “각각의 패브릭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컬러의 정확한 발색이 어려울 수 있었음에도 빈폴에서 매우 정확하게 적용, 표현해 주셨어요. 이 점이 이번 협업의 중요한 성공 요소였죠.” 소비자들의 호응도도 높았다. 5월 한 달 동안 팝업 스토어가 운영된 영등포 타임스퀘어 빈폴 매장의 매출은 전년 대비 2배 가까운 신장률을 기록했을 정도였다.

마케팅전략팀 조현정 과장은 “노루 두 마리 심볼을 이용한 디자인 무드와 방향성은 저희가 제안했습니다. 귀여워서 반응이 좋았요. 기성세대는 노루페인트를 백화점, 빈폴 매장에서 만나는 것을 굉장히 이색적으로 느끼며 반가워하고, 1020세대는 팝업 스토어의 디스플레이와 <컬러 사운드> 영상 앞에서 인증샷을 많이 찍었습니다. 매력적으로 느끼는 거죠.”라고 현장의 반응을 소개했다.

팝업 스토어 촬영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소비자들의 호감을 느낄 수 있었다. 유아차를 미는 가족, 팔짱을 낀 커플들, 굵은 허리로 느릿느릿 지나가던 노부부 모두 팝업 스토어 앞에서 걸음이 느려지고 눈빛이 반짝이곤 했다. 물결치는 COLOR SOUND 글자와 컬러들은 시원한 여름, 스포츠의 활력과 즐거운 추억을 전했다. 많은 이들의 이번 여름 추억 한 편엔 노루페인트와 빈폴의 2024 SS 컬러 사운드 콜라보 컬렉션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빛의 연대기 컬러로 함께하다

《새벽부터 황혼까지-스웨덴국립미술관 컬렉션》 with NOROO PAINT

8월 25일까지 마이아트뮤지엄에서 열리는 《새벽부터 황혼까지-스웨덴국립미술관 컬렉션》은 북유럽 국가에서 19세기에서 20세기 사이에 일어난 미술의 변화를 따라가며 고유의 화풍이 정립된 배경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시이다. 노루페인트는 이번 전시에 함께하여 북유럽 화풍 속 빛의 변화가 잘 드러나도록 컬러로 뒷받침했다.



빛으로 빛을 윤키다

사회와 기술의 거대한 변화 속에서 화가들 역시 전에 없던 그림을 새롭게 만들어가던 19세기, 그러나 스웨덴의 보수적 미술계는 기존의 역사화와 풍속화를 고집하여 새로운 회화 실험과 전시 기회를 갈망하는 젊은 예술가들을 옥죄었다. 이에 프랑스 파리로 떠난 젊은 화가들은 공방에서 전통적 이상향을 매끈하게 그리는 게 아닌, 야외에 나가 빛과 그림자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대상을 생동감 있게 윤키는 화풍을 체득, 귀향하여 고국의 정경과 현실에 접목하였다. 스웨덴을 비롯한 덴마크와 노르웨이 등 북유럽 예술가들이 특유의 예술을 확립한 여정은 “둥이튼 예술적 혁신이 예술적 성숙의 황혼기와 민족 낭만주의로 무르익을 때까지”라는 의미를 담아 전시명 ‘새벽부터 황혼까지’로 옮겨졌다.

이국의 화려한 외광에서 빛을 땀겨온 그들의 빛은 아스라한 새벽에서 찬란한 정오, 여운이 충만한 어스름의 황혼으로 나아가며 고국의 자연과 생명, 노동과 일상에 대한 깊은 애정을 전해 관람자들의 마음을 따스하게 밝힌다. NOROO의 순&수 페인트는 화폭 속의 햇살, 별뿔, 윤슬, 노을, 촛불, 그림자들이 모자라거나 넘침 없이 드러나도록, 그리하여 행복, 기쁨, 그리움, 경의, 존중이 고이 전달되도록 전시장의 각 챕터를 은은하게, 어둡게, 밝게 조성함으로써 전시의 완성도를 높였다.





‘거대한 황혼, 북유럽 상징주의와 민족 낭만주의’의 세 번째 챗터는 순&수 MD 6189A Oxford가 맡았다. 1890년 프랑스에 새로이 등장한 상징주의에서 영향받은 북유럽 화가들은 대상에 대한 분명한 묘사보다 감상자에게 전달될 분위기와 느낌에 집중했다. 이 시기엔 특히 황혼을 모티프로 한 대형 작품이 두드러지는데 고요하고 고립된 분위기가 특징적이다. 그림에서 스러지는 서쪽 햇빛들은 노루페인트의 묵직한 청색 안에 고여 관람자의 시선에 오래도록 머물 수 있었다.

마지막 챗터, ‘아늑한 빛, 북유럽 가정과 실내 풍경’은 촛불 켜진 실내의 아늑함과 따뜻함에 제격인 순&수 VV 8037 Sunflower가 민족 낭만주의적 시선으로 포착된 소박하고 소중한 삶의 순간을 환하게 비춘다. 행복한 가정생활을 그려 스웨덴의 국민 작가로 불리는 칼 라르손의 작품들은 순&수 BT 7037 Heavenly Pink 속에 감싸여 컬러 이름 그대로 천국 같은 감상을 낳는다. 새 세상에 도전하고, 제약을 이겨내고, 고국을 품어내고, 일상을 소중히 아끼는 그들의 작품에는 야외의 빛에서 실내의 빛, 그리고 내면의 빛까지 빛이 가득했다. 이어지는 빛의 연대기인 《새벽부터 황혼까지 - 스웨덴국립미술관 컬렉션》은 북유럽 화가들이 어떤 신념으로 무엇을 그리고자 했는지가 각 챗터의 컬러로 강조되어, 빛과 컬러의 조화가 더욱 돋보이는 전시이다. 놓치지 않고 관람하길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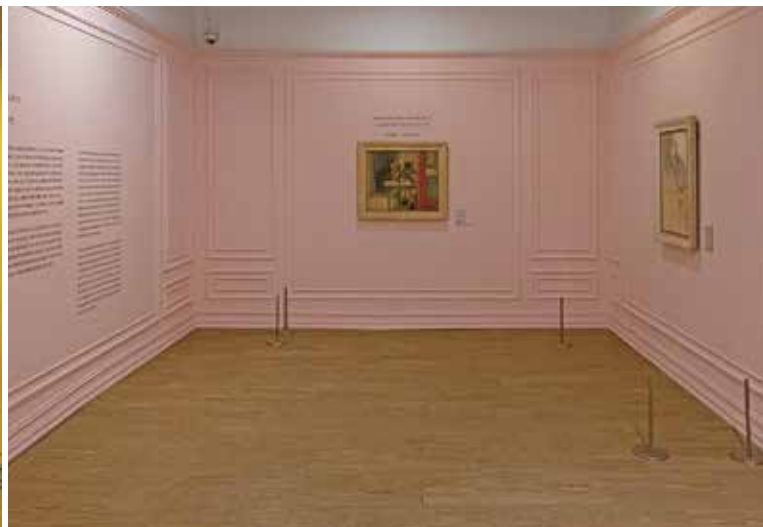


컬러로 빛을 감싸다



첫 챗터인 ‘혁신의 새벽, 스칸디나비아 예술의 새로운 빛’은 순&수 MD 5116 Gloomy Ivy로 시작한다. 들판의 키 작은 풀잎 사이까지 스미는 아침 햇살처럼 부드러운 컬러는 프랑스에서 체득한 자연주의와 인상주의의 영향 아래 그려진 북유럽의 풍경이 넉넉히 펼쳐지도록 편안한 배경이 되었다. 자연주의와 인상주의, 외광 회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그려진 풍경과 인물은 현대화를 향한 북유럽 화가들의 도전과 열망을 보여준다. 야생동물 화가였던 브루노 릴리에포로스 그림들은 자연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생명들과 공생하는 북유럽의 정서를 느끼게 하는데, 여백의 미를 살리고 일본의 병풍처럼 표구된 데에서 당시 유럽에서 유행했던 ‘자포니즘’의 영향을 보여준다.

두 번째 챗터, ‘자유 의 정오, 북유럽 여성 화가들의 활약’은 순&수 NU 3031 Gloomy Dessert, NU 4003 Heather Ashes가 사회적 제약 속에서도 작품 활동을 하며 자기 자신은 물론 여성의 영역과, 북유럽의 예술 세계를 확장해 간 여성 화가들의 의지와 뛰어난 역량을 서늘하고 차분한 색조로 단단히 지지해 주었다. 아침햇살이 어룬진 테이블 보, 오묘한 빛깔의 눈 쌓인 산과 깊은 바다는 굳이 역사적 의미를 찾지 않아도 그 자체로 아름답다.



사라졌으나 살아난 그곳, 폼페이

《폼페이 유물전 - 그대, 그곳에 있었다》with NOROO PAINT

지난봄, 모던하고도 미래적인 공간으로 유명한 더현대 서울에 고색창연한 전시가 열렸다. 한-이탈리아 수교 140주년 기념으로 나폴리 국립 고고학 박물관 소장전이 공중정원이 내려다보이는 6층 ALT.1에 열린 것. 2천 년간 완벽하게 보존된 프레스코와 조각 등은 《폼페이 유물전 - 그대, 그곳에 있었다》라는 전시 제목과 노루페인트의 컬러로 현대에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고전을 옮겨온 현대

그리스와 로마 문화가 공존하며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던 도시 폼페이는, 서기 79년 8월 24일,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로 2~3m 두께의 화산력과 화산재에 뒤덮이면서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화산재가 타임캡슐 역할을 해 도시 전체가 1700년이 넘는 동안 놀랍도록 완벽하게 보존되었고, 1748년 이후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다. 폼페이의 벽에 있는 낙서부터 생활용품 등은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일상을 보여주고 장신구와 도자기 등의 유물은 고대 도시의 찬란한 문명을 담고 있어서 매우 특별하다.

이번 《폼페이 유물전》은 선명한 색채의 프레스코 벽화부터, 거대한 조각상, 섬세한 청동 조각, 사람 캐스트 등 나폴리 국립 고고학 박물관의 소장품인 고대 유물 127점과 몰입형 미디어 콘텐츠로 꾸며졌다. 유물전이 갖는 고전적인 분위기와 세련된 현대 감각의 영상이 공존하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세대를 아우르는 전시로 연출되었다. 실제로 전시 개막 당일, 관람 시간 내내 입장 대기가 이어지면서 첫날 하루에만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약 2천 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갈 정도로 전시장이 붐볐다.



이야기를 복원한 컬러

나폴리 국립 고고학 박물관의 고고학자, 마리아루치아 자코가 직접 큐레이팅한 이번 전시는 크게 다섯 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그리스 로마 시대의 철학과 생활상을 전한다. 전시장 곳곳에는 섹션별 설명은 물론, 전시품에 대한 설명들이 자세히 마련되어 있어서 그리스 로마의 고전 사상과 당대인들이 가진 사랑과 아름다움에 대한 이상주의적 태도를 이해시킨다.

이어지는 동선 속에서 섹션의 분위기를 바꾸고 벽면의 텍스트에 집중시키며 전시품이 품은 이야기를 더 생생하게 들려주는 것은 노루페인트의 컬러이다. 첫 번째 ‘폼페이, 위대한 시대를 꿈꾸며’와 두 번째 섹션 ‘폼페이에서 발견된 그리스 로마 신화 속의 사랑’에서 이어진 세 번째 섹션 ‘삶의 즐거움: 폼페이의 멋진 삶에 대한 로마인의 사랑’에서는 그 컬러의 역할이 증폭된다. 강렬한 레드인 PANTONE 19-1557 Chili Pepper는 매력적이고 복잡한 존재인 디오니소스의 광기와 지혜를 전하고 에로틱한 벽화 장식과 연극 무대의 생명력을 더했으며 순&수 MD 6042 Chilli Chocolate은 폼페이의 목욕탕과 원형경기장에 대한 설명에 고풍과 위엄을 부여했다. 반인반수인 숲의 정령, 사티로스과 님프의 조각상은 순&수 NU 4146 India Green에 감싸여 안개 낀 나무 사이에 놓인 듯 보인다. 순&수 MC 2005A Smoky Moon의 복도를 지나 만나는 섹션 4, ‘고대 예술의 미 개념’에서는 전시장을 폼페이의 주택인 도무스처럼 꾸몄다. 진열장 안에 페인팅된 순&수 MD 6081 Butterscotch의 노랑은 햇살을 받은 것처럼 보여 전시장에 설치된 이머시브 영상과 함께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던 야외의 풍경을 상상케 한다.



영원으로 남은 순간

다섯 번째 섹션인 ‘다시 찾은 폼페이’에서는 여성의 조각상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가장 아름다운 여인인 헬레네에 대한 소개와 각종 화장 도구들을 전시한 이 공간은 순&수 NU 4123 Green Terrace가 싱그럽고 우아한 공기를 채운다. 차분하고도 화사한 이 컬러로 꾸며진 이곳은 관람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섹션 중 하나가 되었다.

마지막 구역에서는 화산재를 연상시키는 잿빛 속에 놓인 젊은 여성의 캐스트와 이머시브 영상이 전시의 감상을 증폭시킨다. 사람 캐스트는 화산재 속에서 부패해 사라진 시체의 빈 자리에 석고를 부어 형태를 복원한 것. 그 위에 펼쳐진 영상 속 문구, “영원을 통해 본 아름다움의 순간”은 이 전시를 관통하는 주제를 명확히 한다. 모든 건 변화하지만 우리는 영원을 통해 순간을 보고, 순간을 떠올리며 영원을 되새긴다는 것. 영상이 묻는 “순간적이면서 동시에 영원한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란 질문에 대한 답은 ‘폼페이’ 그 자체가 아닐까.

다채로운 시선 끝 찬란한 빛깔들

《볼로냐 일러스트 원화전 57th》with NOROO PAINT

세상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색깔이 있지만 누구나 그것을 누리진 못한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빨간 색으로만 보이는 꽃 한 송이 속에도 연한 초록에서 시작되 어 다홍, 진홍, 불타는 크림스 레드로 가는 색깔들의 잔치가 열리고 있다. 이것은 오래,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잔치이다. 볼로냐 일러스트 원 화전에서는 그렇게 섬세히 세상을 보는 작가들의 다채로운 시선을 만날 수 있었다.



세계의 일러스트 작가들을 만나다

지난 4월 21일까지 서울 CXC아트뮤지엄에서 열린 《볼로냐 일러스트 원화전 57th》의 주제는 ‘80가지 의 다채로운 시선’이었다. 우리 일상의 순간들을 80 명의 일러스트 작가가 그려내는 다채로운 시선을 통 해 만나보자는 것.

유서 깊은 이탈리아의 중세 도시 볼로냐에서는 우수 한 아동 문학 작품에 대해 ‘볼로냐 라가치상’ 등을 수 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도서 박람회 <볼로냐 아동 도서전>이 1964년부터 매년 개최된다. 이 도서 전의 핵심 프로그램인 <볼로냐 일러스트 원화전>은 1967년에 시작된 이래 해마다 ‘올해의 일러스트레 이터’들을 선정하여 전시를 여는데, 《볼로냐 일러스트 원화전 57th》는 2023년 전시를 위해 전 세계 91 개국에서 4,345명의 작가가 보내온 작품 중 선정된 작가 80명의 작품을 한국에 선보인 것이다. 다양한 나라, 인종, 기법, 주제로 모인 작품들은 아동 일러스트 특유의 넘치는 생동감과 찬란한 빛깔들로 CXC아 트뮤지엄을 가득 채웠다.



그림 속으로 떠나는 긴 여행

수많은 작가의 각각 다른 개성과 에너지가 넘치는 많은 작품들을 한 전시장 안에 담기 위해 주최 측은 다섯 개의 섹션과 노루페인트의 컬러를 준비했다. 전시장은 PANTONE 12-0740 Limelight의 환한 노랑으로 관람객을 환영한 데 이어 PANTONE 17-1842 Azalea의 진홍을 배경으로 <볼로냐 아동 도서전>과 <볼로냐 일러스트 원화전>, 볼로냐 도시에 대한 설명을 구성해 전시에 대한 기대를 돋우었다. 첫 번째 섹션인 ‘여행’은 순&수 VV 8033 Carrot Candy가 주황 특유의 발랄함과 달콤함이 느껴지는 컬러로 어딘가로 떠나는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어 준다. 여기에서의 어딘가는 작품, 그리고 다음 작품이다. 뼈를 사랑하는 강아지를 따라 들어가면 늑대들이 떼 지어 달리며 다음 모퉁이로 여행을 안내한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마주하는 작품들이 말을 거니 관람은 꽤 길고 재미있는 여행이 되고 만다.

두 번째 섹션, ‘동물들’은 어린이들이 환호할 귀여운 설치 작품이 관람객을 반기며 주제를 명확히 한다. 동물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고 탐험해 보는 이 섹션은 순&수 BT 7146 Vivid Gar-

den의 싱그러운 초록이 동물들을 위한 자연을 자연스레 구현했다. 세 번째 섹션인 ‘연결’은 프레임과 벽을 넘나드는 거인, 꼬마, 동물 등등의 등장인물이 우리 주변의 조화로운 관계를 일깨운다. 순&수 MC 2001A Clean Shirt의 화이트는 이곳에서 작품들이 거미줄처럼 엮어 보여주는 연약하고도 강한 연결망이 은은하게 빛나도록 도왔다. 미디어 존인 네 번째 섹션에서 영상을 통해 볼로냐 전시 현장의 분위기를 느끼며 긴 여행 중 잠시 발을 쉬었다가 일어나면 마지막 섹션, ‘일상’이다. 세계 여러 나라의 서로 다르고도 같은 평범한 일상들 속에서 발견된 순간들은 순&수 WT 1093 Ice Glow의 부드러운 화이트와 벽면에 꾸며진 나무 속에서 특별한 사건이 된다. 전시는 관람객을 맞이한 노랑의 채도를 높인 PANTONE 12-063 Blazing Yellow가 마지막 코너인 긴 복도를 장식하며 마무리된다.



다채로움이 더 선명히 빛나다

다섯 개의 섹션 외에도 ‘볼로냐 국제 일러스트 상’ 우승자 특별전과 한국 작가들의 작품과 도서를 모은 코너, 곳곳에 비치된 책과 체험 코너, 포토 스팟 등 <볼로냐 일러스트 원화전 57th>는 볼거리도, 이야기도 풍부한 전시였다. 여기에 노루페인트는 선명한 컬러를 입혀 그야말로 전시의 ‘색깔’을 분명히 했다. 80명 작가의 다채로운 시선 하나하나가 찬란한 빛깔로 생생히 살아났던 전시, <볼로냐 일러스트 원화전 57th>였다.



NEWS BRIEFING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친환경 바이오 소재 상업화 추진 확대



국제테니스연맹 인증 바닥재 ‘노루웨이 스포츠코트’ 출시



특수학교인 ‘동현학교’ 생활환경 개선 지원

(주)노루홀딩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친환경 바이오 소재 상업화 추진 확대

종합일간지인 아시안투데이는 지난 5월 21일, [위드 ESG]의 기획기사 코너에서 노루홀딩스의 친환경 바이오 소재 상업화 및 ESG 활동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노루홀딩스는 지속 가능한 미래 바이오 소재의 개발 목표 아래 본격적으로 바이오 소재의 상업화 추진에 속도를 내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재작년에는 생분해 소재 원료가 되는 3-하이드록시 프로피온산(3HP) 생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시범 설비를 완공했으며 올해는 해당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시안투데이는 3HP가 해조류·미생물·옥수수 등 천연 재료에서 바이오 공정을 통해 추출되며, 석유 기반 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고부가 미래 바이오 소재’로서 각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연 분해 가능한 플라스틱, 위생용품용 고흡수성 수지 등에 적용 가능한 것도 특징이다. 실제 노루홀딩스는 자회사인 노루페인트를 통해 업계 최초로 ‘바이오 생분해 플라스틱’ 용기를 적용한 친환경 패키지를 지

난해 7월 출시한 바 있다. 해당 패키지에 적용한 ‘d2w’ 물질은 5년이 지나면 미생물에 의해 생분해되어 이산화탄소, 물, 바이오매스로 전환된다.

아시안투데이는 노루홀딩스가 2022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지원하는 국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서울대 등 국내 7개 대학과 산학협동 협의체인 ‘해조류 바이오리파이너리 연구단’을 구성해 사업화에 한 발짝 다가간 것도 기사에 다뤘다. 해양 자원에서 친환경 바이오 소재를 추출·개발하는 이 연구에서 노루홀딩스의 최종 목표는 해당 물질을 친환경 플라스틱 등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외에 안양·포승 등 공장 내 노후 가로등을 태양광 전기 가로등으로 교체하고 지난해 1월엔 포승공장의 지붕 및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가동하는 등 노루홀딩스는 사업장 내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

아시안투데이는 이러한 노력을 언급하며 2021년 ESG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지난해에는 ESG 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ESG 경영에 적극적인 노루홀딩스의 ESG 종합 등급이 C등급(2020년)에서 A등급(2021~2023년)으로 개선됐음을 밝혔다. 이어 기사 말미에는 “올해부터는 투자·심의 단계에서부터 관련 규제를 검토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확대함으로써 ESG 경영의 내

실을 다질 것이다. 또한 공장 내 태양광 발전 설비 구축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추진하겠다”라는 노루그룹 측의 목표를 전했다.

(주)노루페인트

국제테니스연맹 인증 바닥재 ‘노루웨이 스포츠코트’ 출시

노루페인트는 최근 국제테니스연맹(이하 ITF)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한 체육시설 하드코트용 바닥재 ‘노루웨이 스포츠코트’를 출시했다. ITF 인증은 테니스 경기에 적합한 품질을 보유하고, 사용자의 안정성과 운동 수행 능력을 확보해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는 제품에 주어지는 인증이다.

노루웨이 스포츠코트는 MZ세대 스포츠로 인기가 급부상한 테니스 열풍에 맞춰 개발한 기능성 바닥재다. 테니스를 즐기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지자체는 공공 테니스장 조성 확대를 계획하고, 실내외 민간 테니스장 역시 늘어나는 등 국내 테니스 시장은 날이 커지고 있다.

이번 신제품은 테니스 코트 외에도 다목적구장 등의 체육시설에 최적화된 제품이다.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던 기존 체육시설 바닥재(클레이, 인조 잔디 등)와 달리 도막이 견고하고 내마모성이 뛰어나 관리가 수월하다. 또 속건 타입의 1액형 수성 타입의 바닥재로 냄새 걱정이 없으며, 빠른 건조와 작업성이 용이한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실내마크 취득으로 실내외 모두 적용 가능한 범용성, 내후성을 비롯해 은폐력과 부착성이 우수해 탄성과 미끄럼 저항성을 갖췄다.

그간 해외 수입 제품에 의존하던 테니스 하드코트용 바닥재의 국산화를 이룬 이번 제품은 공사비 절감 및 테니스 인구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루페인트는 앞으로도 스포츠 산업 발전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 생활체육 시설과 관련된 다양한 기능성 제품을 적극 개발할 예정이다.

특수학교인 ‘동현학교’ 생활환경 개선 지원

노루페인트는 지난봄, 경기도 광주에 소재한 지적장애 특수학교인 ‘동현학교’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색채 디자인과 친환경 페인트 순&수를 지원했다. 이번 지원 사업은 동현학교 내의 진로직업교육관 증축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진로직업교육관은

NEWS
BRIEFING

우리의 역사를 지키는 노루페인트, '통곡의 미루나무' 보존 처리 협력

일상생활에 서툰 학생들이 직업 현장에 어려움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반복하는 시설이다.

노루페인트는 화합, 활기, 집중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유니버설 디자인에 컬러를 활용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사용하는 제품 및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이다. 노루페인트는 눈에 피로가 가지 않도록 명도 차이를 낮추어 편안함과 집중력 향상을 돕는 디자인 요소를 현장에 적용했고 활기가 필요한 곳에는 옐로와 오렌지 계열의 패턴을 추가해 각 공간을 차별화했다.

동현학교 진로직업교육관에 시공된 페인트는 노루페인트의 대표 친환경 제품인 순&수 페인트로 은페력이 좋아 다양한 재질에 사용이 가능하고 평활성과 작업성이 우수해 누구나 전문가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우리의 역사를 지키는 노루페인트, '통곡의 미루나무' 보존 처리 협력

노루페인트는 우리 역사의 의미와 상징성을 지키기 위해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 전시된 '통곡의 미루나무' 보존 처리 작업에 협력했다. 통곡의 미루나무는 조국 해방을 보지 못한 독립운동

가들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나무를 부여잡고 눈물을 흘려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이 나무는 지난 2020년 태풍으로 인해 쓰러졌으나, 역사관 측은 쓰러진 모습 그대로 소독 및 보존 처리를 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보존 작업은 고사목에 방부처리를 통해 전시효과를 극대화하고 사형장의 역사적 의미를 오래도록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4일간 이루어졌으며 관리 규정에 따라 수중심의위원회와 전문가 자문 의견을 반영, 국가유산청에 등록된 보존과학업 전문가가 나무의 방부·방충 작업 후 열화 및 손상 방지를 위한 홈 메꿈 작업을 실시했다.

노루페인트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작업에 협력, 눈과 비, 곰팡이, 미생물 및 벌레로부터의 보호에 강점이 있는 특화 페인트 '올뉴칼라스테인'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보존을 위한 기술을 지원했다. 연간 60만 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찾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과 함께 뜻깊은 보존 작업을 한 노루페인트는 앞으로도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에 의미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기획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예정이다.

QUIZ!

2024 여름호 사보를 꼼꼼히 읽어주신 독자님께
퀴즈를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아래 퀴즈의 답을 메일로 보내주세요.
총 10분께 5만 원권 문화상품권을 선물합니다!

TIP 답은 늘 사보 안에 있습니다!

Q

지난봄, 기반테크는 농축산용 ○○○, '에너지세이버'를 일본에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품은 노루페인트와 농촌진흥청이 지난 2014년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 개발한 고온대책 아이템으로, 온실이나 축사 지붕에 적용하여 내부의 온도를 낮추는 기능을 합니다. 작업 난이도와 가축의 고온 피해를 낮추고 작물의 수확량을 높이는 효과가 입증된 이 농축산용 ○○○의 ○○○ 안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 ① 해열제
- ② 소화제
- ③ 차광제

*7월 30일까지 chan@noroo.com으로 정답을 적어 보내주세요.

*당첨 개별 연락을 위해 **반드시 연락처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메일의 제목은 '2024 여름호 사보 퀴즈 정답'으로 보내주세요.

*선정되신 10분께는 문화상품권 5만 원권을 선물 드립니다.

NOROO

NOROO 그룹 사보 | 통권 71호(비매품)

중별: 정보간행물(계간) 등록번호: 안양 바00022 등록연월일: 2019년 3월 15일 발행일: 2024년 7월 5일 발행처: (주)노루홀딩스
발행인: 강태준 편집인: 정석찬 기획 및 디자인: (주)리커뮤니케이션, (주)노루로지넷 사진: 마주스튜디오 인쇄: (주)대한프린테크
발행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51 문의: 02-2191-7700